資料調査와 基盤구축에 力點

文化藝術진흥院 中興五개년計劃첫발

◇ 政府의 文藝中興5개년計劃을 집행할 文化藝術振興院은 7日 74年度에 실시할 細部事業計劃을 발표했다. 금년도 文藝中興計劃에 투입될 50億원중 文藝振興院이 집행할금액은 11億2千5百39萬5千원인데 振興院은 傳統文化및 藝術전반의 기본적인자료조사와 文藝振興의 기반을구축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집행하게된다.

一次年度인 금년에 振興院은 文藝中興의 기반조성사업과 五個年計劃사업인 지원육성사업으로 나누어 집행하는데 기반조성사업은 一千九百七萬四千원을 들여 文化藝術人카드작성 國內文化藝術團體實態조사 在外韓國文化藝術人실태파악 國學開發센터설립운영 文藝資料센터 外國주요文化藝術團體현황조사등 五個年計劃의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치중한다.

文化藝術人카드작성은 一萬一千명에 이르는 文化藝術界인사전반에대한 기초자료조사로서 文學 美術 音樂분야는 이미 발송을 끝냈고 在外韓國文化藝術人실태를 파악하여 「年間 海外活動白書」를 작성하게된다. 振興院에 부설될 國學開發센터는 國學연구의 핵심기구로 國學관계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國學연구의 總本山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게된다.

國學개발센터는 기반조성사업이지만 연구지원비는 五개年計劃사업에서 五百六十萬원이 나오고 운영비만 四百六十二萬원이 투입된다. 國學개발센터는 硏究俯報발간과 古典종합조사 古典國譯사업 韓國學硏究지원등 國學관계연구를 조정하는 중추기구로 활용된다.

豫算11億 모두劇場募金으로 調達

國內外 藝術人카드作成·團體 實態파악

支援順位는 藝術·傳統文化·大衆文化順

방대한 業務·官의 主導에 不安

진흥원은 이밖에도 부설기구로·美術人의 발표광장을 넓히기위해 美術전시관을 우선 서울 안국洞에 마련하고 演劇센터도 금년안에마련, 演劇人들의 워크숍과 각종집회에 사용키로했다. 또한 資料센터는 기초조사및 수집에 중점을두고 三百五十萬원을 들여 國內外의 文化藝術관계자료를 수집 활용한다는것이다.

支援育成사업은 總 九億九千八百萬원을 들여 四十개부문 六十八개사업을 지원하게된다. 이미 발표된 지침에따라 투입될 금액은 傳統文化개발부문에 一億五千四百六十萬원 藝術진흥에 五億三千九百二十萬원 大衆文化 창달에 一億二千一百萬원 그리고 文藝中興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九千五百萬원을 투입키로 확정했다.

◇分野別投資 (單位 千원)

投資區分	投資額	比率%
文學	138,000	15.2
美術	140,000	16.0
音樂	58,500	5.7
演劇	89,100	9.8
무용	113,600	12.6
民族史觀定立	121,100	13.4
傳統藝能	33,500	3.4
出版	121,000	13.3
文藝中興造成	95,000	10.6
計	909,800	100%

振興院이 금년에 사용하는 총十一億여원의 財源은 전액이 전국의 邑面단위이상 六百四十四개에 이르는 劇場모금을 통해 조달되는데 작년 七月이후 이미 三億원을 모금했고 금년分은 모금실적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振興院은 편의상 事業의 우선순위를 책정, 部門別로는 ㊀藝術振興(文學 美術 音樂 演劇 무용) ㊁傳統文化(韓國學개발 傳統藝能) ㊂大衆文化(出版) ㊃文藝中興기운조성등의 順位로 사업을 진행하며 성격별로는 出版金庫基金과 作家基金지원 문학과 음악 연극 무용 부문의 창작지원과 美術展示館 연극인센터 國學개발센터 記錄書제작 창작극公演 國樂敎育지도書발간 무용技法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반조성작업 八개부분을 포함하여 총 七十六개에 이르는 七四年度사업은 각 부분별 委員會의 審査와 조정이 이루어진다. 文學 美術 音樂 演劇 무용 傳統文化부문은 支援심사委員會가 관장하며 심의과정의 부작용을 막기위해·非固定委員制를 채택키로했다. 또한 五개년計劃사업의 일환인 作家基金운영 民族文學大系 民族記錄書제작등 十개부문은 常設委員會를 두고 추진하며 創作·音樂 演劇및 무용用語集발간등 三개부문은 七四年度에 완결되는 사업으로 非常設委員會관할아래 운영된다.

文化藝術振興院은 五개년計劃의 細部計劃이 늦어졌음을 시인했지만 文化藝術人카드작성사업을 비롯해 美術展示館이 계약단계에 있으며 九개劇團에 대한 創作劇지원보조금 九百萬원이 나갔고 民族記錄書(經濟편)가 제작에 착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演劇레퍼터리 委員會가 구성단계에 있고 野外조각始刻式을 마치고 十基의 조각이 제작중이다.

文化藝術振興院은 금년이 五개년計劃의 첫해이니만큼 民族文化創造의 새 기틀을 마련한다는 기대에 부풀어있으나 計劃자체가 新設機構로서는 벅찬정도로 방대한데다 「支援」에 있어서 基金의 운영과 配定 그리고 優先順位결정등 문제는 文藝振興의 앞길을 가늠하는 문제인만큼 불안을 감추지못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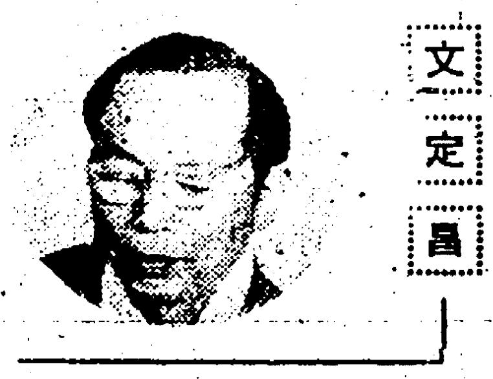
例로써 각 部門別委員會만도 十九개나되며 管理機構가 필요이상으로 비대될 우려가 짙고 支援審査委는 심사과정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非固定委員制를 채택하고있으나 각委員會마다 官이 當然職委員으로 직접 개입하게돼있어 실질적으로 「副作用」을 배제할 제도적 보장이 없는 상태다. 〈李吉範기자〉

다나까發言에 새삼警覺心이…

구보다妄言·다까스기의 怪說에어어 세번째

지금도 사무치는 日帝의 쌀收奪

오늘의 經協, 속죄意識 지녔는가



文定昌

征韓日本의 朝鮮强占을 찬미하는 日本人들의 시도가 이번「다나까」首相까지 三차 반복되었으니 맨처음이「구보다」(久保田)씨의 망언이었고 다음이 제二차 韓日會談首席代表「다까스기」(高杉晉一)씨의 怪說이었다.

「다까스기」씨는「韓國은 政治的으로는 유지되고 있으나 日本이 물러난후 山林이 황폐화하여 전국의 山이 벗거숭이가 되었다」고 발언, 이것이 문제되자 그는 곧 韓日會談代表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우리의 반박은 이러하였다.

본시 울창무성하던 韓國의 山을 깡그리 벌거숭이로 만든것은 軍國日本이다. 江華條約직후부터 日本人들은 朝鮮의 산림을 벌채하여 日本으로 실어가다가 朝鮮政府의 官員에게 들켜 숱한 문제를 일으켰으며 露日戰爭직후부터 압록江 流域의 原生林을 十億一百萬圓어치나 베어갔다. 十億圓은 오늘의 日貨 一兆億圓이요 三十三億달러가 된다.

日本人들의 山林벌채는 대소업자들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계속 진행되었으며 關東大震災가 일어나자 그들은 咸鏡南道 七郡에 걸친 大樹林에 불을 질러 먼저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巨樹들을 베어 東京으로 보냈다.

해가 갈수록 韓國의 山이 벌거숭이가 되고, 河川이 메워 범람하며 부락의 民家들은 차례로 자취를 감추게되고 八道의 거대한 정자나무들은 日本人들의 高級家具用材로 벌채되었다.

太平洋戰爭때 日本은 韓國의 山林을 마구베어 正宗大王의 효심어린 水原 華山의 三百年묵은 巨樹들도 미처 없앴고 戰時에 계속이 부족하자 국민학교학생들을 동원하여 松뿌리를 캐내어 年間 數千萬石씩의 松炭油를 짜냈으며 終戰시 그러한 松炭油의 在庫가 二十萬드럼에 이르렀던것이다.

「다나까」首相은 이번의 발언을 통해 우리의 쓰라린 가슴을 두군데 찔렀다.

첫째 敎育문제다. 日帝의 韓國人敎育에는 文盲 우민(愚民) 民族抹殺 三요체(要諦)가 있었다. 一九〇五年에 설치된 統監府는 私立학교 취체(取締)규정을 발포, 한창 싹트기시작한 朝鮮人의 敎育을 원천적(遠源的)으로 꺾었다. 이때 二十萬명에 달했던 生徒數는 단 五千명으로 줄었다. 얼마후 書堂規則을 개정, 三萬개의 書堂을 거의 모두 없애버린 그들은 소위 一郡一校主義를 채택, 교육을 실시했다. 一郡의 인구는 평균五萬, 一校는 四학급 四年制 一학급의 생도수는 五十명이었다.

三·一運動後 소위 文化總督「사이또」(齋藤實)는 三面一校主義를 실시했고 滿洲事變이 일어나자 그들은 人的資源의 개발을 위하여 비로소 面마다 二年制 간이학교를 설치, 日本語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日帝는 學校敎育으로 朝鮮民族을 말살하기위해 八세의 아동들에게 日本語의 常用을 강요하였으며 모진 매로 日本의 歷史를 주입시켰다.

六·二五動亂으로 六十億달러를 벌어 戰後復興에 성공한 日本은 美國의 보호아래 軍備支出이 없었고 국민은 兵役의 부담없이 三十년동안 안정을 누리며 경제부흥을 이루어 소위 經濟大國으로 나서게되었다. 이렇게 富를 축적한 日本은 다시 對韓 經濟進出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변명이 무엇이든, 오늘의 對韓經濟協力은 對日依存을 심화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다나까」首相의 발언은 우리에게 새삼스레 警覺心을 크게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고 쓰라렸던 經濟收奪行爲의 몇가지例를 들어본다.

日本人들은 江華條約직후부터 市場操作과 不正度量衡器의 사용등으로 朝鮮米穀을 日本國內價格의 六분의一이하의 헐값으로 매수하여 매년 數百萬石씩, 韓日合倂직후부터는 五百萬내지 一千萬石씩을 日本에 반출하였으니 그總量이 二億四千萬石에 달하였다. 이 바람에 朝鮮人의 一人當 쌀消費量이 九말로부터 四말로 줄어들었으니 이것을 그당시의 經濟學者는 「飢餓輸出」이라 하였다.

太平洋戰爭때 勞力不足으로 生産이 크게줄어들자 「供出」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면 家宅搜索까지하여 朝鮮米를 日本으로 보내고 朝鮮人에게는 滿洲에서 들여온 좁쌀을 배급하였다. 그나마 滿洲의 食糧事情으로 輸入이 잘 되지아니하자 肥料用(콩깻묵)을 먹게하였다.

또한 극도로 鐵材不足에 허덕이자 가마솥 보삽(農具)등 일체의 鐵物을 강탈하고 砲彈製造用 주석이 모자라자 놋그릇 심지어는 숟갈까지도 빼앗아 갔으며 婦女子들에게 强要, 금차회(金釵會)를 조직시켜 금비녀와 금반지를 거둬들이기도했다.

東西古今 어느지역 어느민족에 이처럼 야만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는가. 日本의 韓國經濟協力은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 속죄意識을 수반해야하며 「다나까」首相등이 이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표해야 할것이다. 〈國史學者〉

우리文壇史上 최초로 文學賞수상 拒絶

「現代文學新人賞」(소설부문)에 뽑힌 李祭夏씨

"賞配定에대한 文壇風土·근래 文人들이받는 여러가지 苦痛에 마음걸려"

스케치

○…제十九회「現代文學」新人賞 소설부문수상자로 결정된 李祭夏씨가 최근 이賞을 정식으로 사양함으로써 賞에 무척 애착을 보이는 文壇에 화제…. 六九년 시인 徐廷柱씨가 서울市文化賞을 받지않겠다고 거절한 일이 있었고 七二년에는 朴景利씨가 「土地」에대한 月灘文學賞을 처음에 사양한적이 있지만 정식으로 受賞을 拒絶한것은 해방후 文壇史上 처음.

○…시 소설 그림으로 활약해온 李祭夏씨가 詩로 추천받은것은 五七년, 소설 「黃色강아지」가 당선된것은 五八년, 비교적 寡作이면서도 超現實主義的 手法의 난해한 그의 소설은 독자 혹은 비평가로부터 회피되기도했지만 지난가을에 나온 창작집 「草食」은 七三년도 問題作으로 평가받았고 (「文學思想」選定) 이번 初版이 매진, 再版을 찍어내는 새삼스런 人氣를 모으고있는데 「現代文學新人賞」은 이창작집을 대상으로한것이다.

○…데뷔十七년만에 「新人賞」수상자로 결정된 李씨는 現代文學社에 受賞謝絶을 정식통고했음을 기자에게 밝히면서 「韓國의 文學賞이 때로는 不當하게 配定된다는 평소의 생각, 그리고 근래 文人들이 받는 여러가지 苦痛에 마음걸려 사양했다」고 거절이유를 말했다. 그의 거절이유가 개인적이든 문학사회를 위한것이든 文壇政治와 雜音의 주요소가 文學賞인만큼 그의 이번의 受賞拒否決定은 문학인들의 자세에 자극을 줄듯.

暴力앞으로 맞선 不正問責

佛教조계종 모처럼의 中央宗會 수라장으로

宗會留保문제도 따진 在野측 不信에

執行部선 "너희들은 不法團體다"고함

돈앞에 무색해진 佛心…입에 못담을 욕설亂舞

한국불교의 앞날을 어둡게한 제34차 중앙정기총회。

八百萬 佛教信徒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열린 제三十四차 大韓佛教조계宗의 中央宗會는 단一전의 案件도 처리 못한채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가운데 끝내 流會되고 말았다.

지난해 十二월五일 尹古岩종정의 종회유보선언으로 시작된 조계宗내분은 그동안 재야세력인 宗權守護會(회장 吳綠園)측의 끈질긴 투쟁으로 숱한 우여곡절끝에 중앙종회가 지난 一일 개막되면서 극에 달했다.

종회유보문제로 조계종이 양분되는 위기에 휘말렸다가 극적인 타협끝에 열린 이번종회는 처음부터 현집행부에 대한 종권수호회측의 총사퇴주장으로 시작됐다.

在野側대표인 吳綠園스님은 宗會留保에 대한 책임을 三部책임자(總務·監察·中央宗會)가 지고 총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宗正의 종회기능유보는 總務院長이 주동이 되었고 감찰원장과 종회의장이 부화뇌동하여 이루어진것이므로 모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고 강력한 주장을 계속했다.

이에대해 집행부측인 宋月珠총무부장은 「종회유보는 종헌상 합법적인 조치며 종권수호회나 全國敎區本寺聯合會등이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면서 「불신임결의같은 정식안건을 때에 처리하자」고 표대결의 뜻을 비쳤다.

이는 불신임결의에 필요한 재적의원의 (종회의원은 모두 五十명) 三분의二이상을 재야세력이 갖고있지 못했기때문에 나온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팽팽한 대결은 四일째 회의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재야측이 「종헌종법에도 없는 조계종의 재산을 무슨 근거로 선학원(원장 姜昔珠중회의장)에 二千萬원이나되는 막대한 금액을 주었느냐」느니 「百五十여명의 비구니가 수도하고 있는 慶南청도의 운문寺경내 벌채허가를 주지도 모르게 내줄수 있느냐」「운문사에서 나온 종회 의원도 이번종회에서 처음 아는 정도니 처음부터 부정을 계획적으로 한것이 아니냐」고 총무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孫慶山총무원장은 「十八년전 비구 대처싸움에 선학원재산 四千三百여萬원을 쓴것이니 당연히 갚아주어야한다」면서도 「종회의결에 따르겠다」는 아리송한 답변을했다. 이에대해 재야측이 「어떻게 갚아줄수있겠느냐. 우선 담장은 총무원 전봉자재의 문제도 급한데 무슨 잠꼬대같은 소리냐」고 따지자 집행부측의 李慈信스님이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것을 보니 모두 대처승려들인 모양이다」고 욕바지르자 회의장은 삽시간에 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때부터 三十대승려가 六·七十대의 나이많은 스님에게 일반인의 입에도 담을수없는 갖은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으며 명패를 던지고 책상을 뛰어넘는등 시장바닥같은 진풍경이 벌어지고 끝내는 吳綠園스님이 팔에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는 소동을 빚었다.

이렇게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승려와 신도들은 흩어져 나오면서 「짓고땡이나해 돼지불고기에 막걸리나먹자」「조계종과 대고종(대처종단)의 이름을 따 조대종을 만들자」는등 어처구니없는 풍경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이때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속개되어 현총무원의 四부장(총무 사회 교무 재무)인준을 거부하고 새로운 부장을 선출했는데 인준이 거부된 宋月珠총무부장과 裵松園재무부장이 아이로니컬하게 재선되고 겨우 社會部長에 崔香菴스님(제주관음사주지)과 敎務部長에 裵聚光스님(경기수종사주지)만을 새로 뽑는데 그쳤다.

세번씩이나 회기가 연기된 이번 정기종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六일오후 성원미달로 유회되어 결국은 一전의 불씨도 끄지못한채 언제열릴지도 모르는 임시종회에 모든 안건을 넘겨버린 셈이다. 이번 종회를 지켜본 한 학승은 「결국은 재산때문에 항상 불씨가 꺼지지 않는데 승려와 돈은 과연 분리해서는 안되는 간」라며 「이같은 추태를 보고나니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한국불교의 갈곳이 어딘가를 잘 모르겠다」고 한탄하고있다.

결국 四부대중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종회마저 유회되는 바람에 한때 分宗위기에까지 다다랐던 조계종의 내분은 가라앉기는 커녕 더큰 불씨를 안고있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다. 〈徐權錫기자〉

「在日僑胞 李得賢사건」후원회

服役중인李씨 假釋放 署名운동

在日僑胞 李得賢事件後援會(회장 桂畠英)는 살인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인 李得賢씨의 假釋放을 추진하기위한 署名운동에 착수했다. 五五년 日本 「미시마」市에서 있었던 살인강도사건의 범인으로 피소, 복역하게된 李得賢씨사건은 日本및 韓國의 知識人들에 의해 在日僑胞이기 때문에 받는 부당한 원죄(冤罪)라고 주장, 그救命운동이 벌어졌는데 李씨는 근래 건강이 나빠지고 복역성적이 좋아 再審과 관계없이 假釋放을 요청하게 된것이다.

文化行事

◇「세계名畫복제화전」=七일부터 十九일까지 미도파 화랑에서. 전시작품은 「루오회에서」(르노아르) 「해바라기」(고흐) 「겨울의 몽마르뜨르」(유뜨릴로)등 四十여점

◇동양문화소 漢文과 서예강좌=九일부터 二十일까지 동양문화소에서. 특강내용 「周易의 根本原理」(徐正淇) 「詩經의 理論과 演技」(李培遠)

"나의 行動이 곧 藝術이다"

前衛의첨단 크리스 버든의 奇行

海外文化

作品「二二〇」선觀客에 生命危險맛보여

자신의 藝術을 위해서는 죽음도 무릅쓴다는 行動藝術家 「크리스 버든」㉗。

前衛藝術 특히 行動藝術쪽에는 별의별 奇行이 있기마련이지만 그가운데서도 최첨단을 걷고있는 한 美國청년이 화제가 되고있다. 「캘리포니아」의 「베니스」에 살고있는 二十七세 「크리스 버든」이 바로 그사람인데 이친구는 자신의 藝術을 위해서는 죽음도 무릅쓴다는것. 깨진 유리조각위를 맨발로 뛰고 알몸으로 뒹구는가하면 총에 맞는것까지도 서슴지않는다고. 얼마전 「버든」은 美術館에서 자신의 몸에 感電장치를 해놓고 아무에게나 스위치를 눌러보라고 했으나 觀客들이 겁을 집어먹었다.

「나의 행동이 곧 藝術이다」고 주장하는 「버든」은 최근 작품「二二〇」이라는 묘한 행동으로 또 한차례 화제를 불러 일으켰는데 물이 가득찬 방안에 사다리를 세워놓고 觀客들에게 사다리에 올라가게 한 다음, 물에 高壓電流를 흐르게해서 소동을 빚어냈다.

洪吉童 (583)

朴淵禧 作

金世鍾 畫

뇌물(賂物)之計

굿이 끝나면 으레 젯상을 물려 육복이와 해물은 한데 싸고 마른 것들은 따로 꾸리고 삼색이 떡 목 돈 사오백냥은 무당 복동의 차지가 된다. 열두서 (閉巫)에서 내주는 사인교 하나에도 다 싣지 못하여 두개에 벌려 실어서 젊은 당골과 함께 먼저 복동이네 집으로 보내는 것이 언제나 의례에 속했다.

『복동이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굿이 끝나면 뒷풀이를 드는 것이 좋아서 중전은 복동의 옷소매를 끌면서 말했다.

『굴세옵시다…』

복동은 일부러 새침하여 망설였다.

『바쁜일 있나?』

『굿이 끝났는데 쉰네에게 바쁜일이 있을라구요.』

『그럼 가자.』

복동은 중전이 이끌어 마지못하여 따라가는 체했다. 중궁전에 들자 중전은 좋아하는 명나라 차를 끓여오라 하여 복동이와 마주앉아 마시고 있었다.

복동은 다소곳하여 앉아 끔 생각했다. 한두팔의 부탁을 중전에게 하기에는 위인이 너무 착하다고 느꼈다. 중전의 나이는 벌써 사십이 가깝다. 근래에 몸이 부하여 본태도 과히 예쁘지 않았으면 중전은 며 기는 있어 보이나 명나라 을 서를 발탁하면서까지 십년이나 젊고 요염한 김상궁의 적수는 아니었다. 중전 자신도 그것을 은근히 눈치를 채고 있었다. 임제 상감과 동궁이 만수무강하면 그것으로 낙을 삼자는 생각이 앞서 오늘밤만 하더라도 굿을 한 것이었다.

『복동아?』

중전은 눈에다 웃음을 풍겨 불렀다.

『예…』

『어쩌면 그러냐.』

『무엇이 오니까?』

『너는 젯상만 차려놓으면 말이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니 말이다.』

『중전마마…쉰네가 지어서 하옵니까 어디…도포 입은 백발 만신들이 모여와 자연 말을 일러주고 이 일은 옳으니 하고 저 일은 옳지 않으니 하며 귀에다 입을 대고 일러주는 것을 어찌 하오리까.』

여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때처럼 생글 웃어 보이면서도 눈을 흘겨 복동은 말했다.

『글쎄 그러기에 신통하단 말이다.』

『마마…』

『어서 말 하려무나.』

『쉰네는 진정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에요.』

『네가 올해 몇살이냐?』

『서른 하고도 하나가 꼬리 달리지 않았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쯔쯔쯔…아예 그런소리 말어라.』

『그러니 어떡하서요… 사람의 길흉(吉凶)이 눈에 뻔히 들여다보이니 말이 옳니다…』

『아서라… 옳게만 일러주려무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다. 중생은 다 깨닫지 못하여 어둠속에서 헤맨다고… 알고 있다면야 왜 변할 버이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음인지 중전은 한창을 하여 고개를 숙여 말했다. 복동으로서는 뜻을 알수 없으면서도 속으로 웃었다. 딴생각을 하면서 한눈을 팔고 있었다. 이쯤 되는 시각이면 상감은 벌써 김상궁이 아니면 어느 햇병아리 같은 궁녀의 보드라운 알몸을 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복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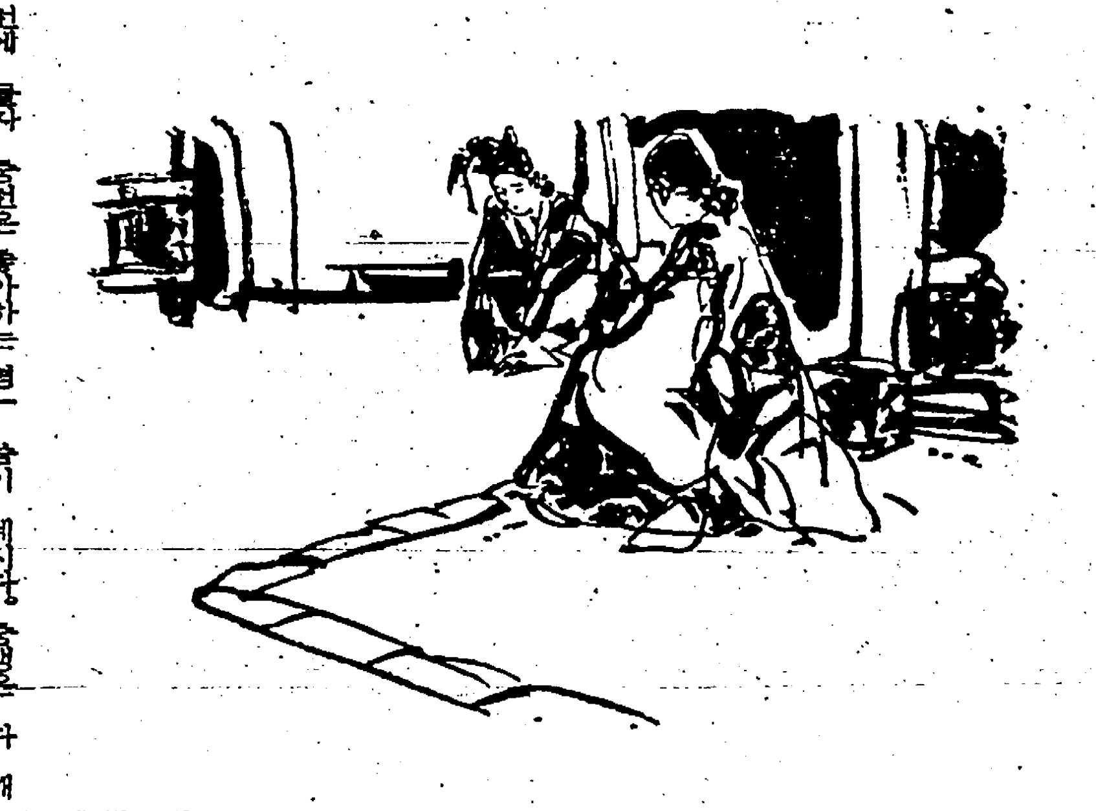
목소리를 꺾어 변덕스럽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면서 중전은 불렀다.

『예…』

푸념 비슷한 지리한 얘기를 들어야할 생각을 하면 골치가 지끈하였지만 복동은 하는 수 없이 푸살궂게 대답했다.

『이제야 보니 네가 인물도 가잘구나.』

『아이고…마마께서도…』



그동안 많은 寵愛를 받았아옵고 또 적지 아니한 弊를 끼쳤읍니다. 感謝합니다. 나는 오늘 먼저 갑니다. 여러분 부디 安寧히 계십시요。

一九七四年二月三日

秦學文

故人의 뜻에 따라 火葬으로 하고 여러분의 念慮하여주신 덕택으로 모든 일을 무사히 끝마쳤음을 衷心으로 감사드립니다。

一九七四年二月七日

未亡人 秦壽美

友人 崔承萬

月刊 韓國產經 支社 支局 募集

本誌는 八〇年代 百億弗輸出目標로 産業維新을 하고 있는 우리 企業의 참모로 새로운 PR方法으로 國內外에 使命을 가지고 創刊된 產業報입니다.

◎支社—特別市·道廳所在地 ◎支局—各市·郡 ◎期間—二月末限 ◎서울特別市鍾路區直接來社面談 鍾路一街三 韓國產經社業務局 ⑳〇五六二—三

男女 사원모집 一, 자격=고졸이상25~40세 二, 구비서류=이·사·주초각1매 三, 대우=月3~5萬원보장 ※중구동자동대림산업연홍신다방 2층 ㊷6030

男女大學生 알바이트 종로2가보신각뒤 수협중앙회 영업부 전화八〇三號

홀 남녀 보증금없음 급모 멤버웨이타 경리 신원확실자 한없음 초보자됨 여급수입보장 하왕십리 노타리 맥심홀 ㊾0376

돈벌이 가정부업으로 월수8 백~2천원의 별이됩 주부무직자학생환영교통비별도 지사모집 ★서울여 교사지리 황제극장4층 영진공사

수출품 부업모집 당사는 생산납품 일당천오백원 재료무상지급 전국지사모집 5가로타리교연4층 전문남인

검정고시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수지도 수강생 全員 合格 목표 大入檢定 특수반 고입검정 정규반 신설반 정원30명 <접수중> 종로 서울예식장건너 국민은행 3층 ⑦3124 ⑦6683 大明學院

검정고시 특수반 학원선택은 合格實績과 전통있는학원으로 (신설반) 마감 11日 ◎주간·야간·男·女·연령제한없음 ㊹7537·4134·4132 종로·화신건너·보신각옆 중앙고시학원

新進

學院	개강	위치	전화
永登浦學院	2月11日	영등포 경인고속 도로입구	63-0036 0037 63-3962 3963
西部學院	2月11日	서대문구 응암동 서부 경찰서앞	38-2997 2684 6597 39-0454
北部學院	2月11日	도봉구 번동 북부 경찰서뒤	99-2861 2862 2863 99-2864 2865

東亞案內 求人

運 취업한분3년이상경력자 동선대입구 명륜빌딩308호

急運 전사33세미만 經三年이상자 本人직접전화요 ㊹7030

相 談役大卒以上35~40세女 인과상식有한자 ㊷4060

癌 각종암은특효 대경협인간료 담경기광수서부면한암리 박상

의사 초빙 ㉜4646 金

急求講師 國語·珠算·簿記·英 力老·日語·漢文 有經驗者 ㊷7040

구급 男藥師 지방근무우대 전화 송탄九八〇

日語敎師 資格者 영등포시장노타리 ㊷2447 이화

募集

활 동적인중년이상女교재납품 10명 10일한 ㉝7402

남녀 공원 20세미만신체건강자 이사지참(공장미아동) ㊹3009

방 다레지 18세이상초보환영 신장개업최고월급 ㊳2275

장미 요정 파티 ㊲4664

금사 19歲未滿中卒토는高卒 女子 판사商文社 ㉝2068

호텔 여급및호스테스19~25세 급모 ㉝7755

요정 ㉗ 8826 초보환영 파티女면접채용 8114

여차장 ★시내시외버스 ★용산학원 ㊸8060

가수선발 합격자무료 무대 취입 ㊸8249

有給 社員 고졸이상남녀 急求 이사지참 주간학습 ⑲7967

다방레지 18~25세 초보환영 신장 최고월급보장 ㊷3625

미싱자수 학원 취직 부업 이민환영 서울역전 ㉔2408

社員募集 女務 男外 판매경험자 우대 장이사지참 사세확장 ㊷1994

新設部署社員募集 男女 당사 기구확장에따라 참신한지혜와 창의력을가진 유능한엘리트를 모집함 1、모집부문및 자격 ◎주간부 3명·대졸이상지도력강한자 ◎일반직·약간명·남여상고졸신우대 2、응모방법: 履·寫·住民 각1매지참 본인직접 내사 면접 3、접수기간: 2月9~10日11時4時限 4、접수처: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우체국뒤 무광빌딩512호 (전문지하가수정다방앞임) 京田開發株式會社

사원모집 공고 남녀 ◎직종: ①간부사원: 2명 ②업무사원: 10명 ③경리사원: 1명 ◎자격: 고졸이상22~40세 ◎기간: 2월9일~10일한 (※일요일도접수한) ◎서류: 이력서 사진각1매지참래사바람 대우: 초봉4만원 위치: 동인천역전광장옆 미담다방4층 ⑦7105

남녀사원모집 직종 간부(차장·대리) 자격 고졸이상23세~45세 사원 十일까지 이력서 사진지참래 ○○명 ○○명 조흥은행 본점 서편 삼광교통 흥국생명 ㉓5616 계영빌딩

精力·性病 藥局 ㉓6820 종로1가

무용단합창단원 혼혈아 단원 모집 무용 합창 ①리틀부 미혼남녀 ②2부 15인내외 ③음악·무용·연극 전속 도로 「가무극」 ◎무용·성악 ◎민족예술인 ◎본부 성동구 천호동 42 ㊺6886 코리아엔젤스무용단

女子종업원 (웨이츄레스) 18歲~20歲 용모단정 중졸이상 고정급료有 "신장개업" 명동고급석매주점 (구청자다반) ㉓7023 ㉒1640

三正出版社 婦女아르바이트 ㊸4037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모든피부병에 후루모트·에프

한일藥品 HANIL

■가려움증·금만성습진·화상·버짐·음부소양증·어린이습진·염증성피부병에 값 3g 360원